

◀ 김종진사장은 철강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과학기술상 기술상을 수상했다.

이달의 과학자

포항제철(주)

金 鍾 振 사장

열간압연 조업기술 개발주역

68년 포항제철 초기요원으로 입사하여 열간압연 조업기술을 최초로 적용, 열연제품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한 포항제철 김종진사장.

김사장은 첨단 건축기술과 정보 네트워크가 결합된 첨단 인텔리전트빌딩인 포스코센터 건립을 주도하여 우리나라 건축사의 새 장을 열기도 했다.

포항제철(주)을 세계 제2위의 철강회사로 성장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등 우리나라 철강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김종진(金鍾振·56) 포항제철(주) 대표이사가 제29회 대한민국과학기술상 기술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첨단기술로 포스코센터 건립

김사장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제 「대한민국과학기술상 기술상」이라는 과분한 상을 받고 보니 학교와 연구소, 그리고 근로산업현장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계신 과학기술인 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이 상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 철강기술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우리 포항제철 임직원 모두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라며 겸손하게 수상소감을 밝힌다.

김사장은 지난 68년 포항제철(주) 초창기 요원으로 입사하여 열간압연 조업기술을 최초로 적용하여 개발과 꾸준한 공정개선으로 열연제품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광양제철소장시에는 사전에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및 조업자재를 적기에 조달, 건설공기 단축과 정상조업도를 조기에 달성함으로써 최소의 비용으로 21세기형 최신편 제철소를 성공적으로 건설했다.

특히 포항제철(주) 기술담당 부사장, 사장 등을 책임지면서 고부가가치 신제품을 적기에 개발하여 철강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였으며, 용융환원제철법, 박슬라브주조법, 스트립 캐스팅(Strip Casting)기술 등 차세대 혁신철강 제조기술을 과감하게 도입, 개발함으로써 한국철강산업의 위상을 격상시켰으며, 첨단건축기술과 정보 Network가 결합된 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인 포스코센터 건립을 주도하여 한국 건축사의 새 장을 연 것으로 평가됐다.

“포스코센터는 건립추진과정에서 국내에는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 설계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빌딩자동화와 정보통신 사무자동화의 통합설계를 선진국과 공동으로 설계토록 하여 첨단 건축기술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영상회의시스템, 쌍방향 케이블TV시스템, 인공지능 엘리베이터, 자동문서 발송설비, ID카드 시스템 등을 갖춘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이죠.”

김사장은 이외에도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와 철강업 전망'에서 한국철강업체가 국제경쟁력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과제와 방안을 제시하는 등 5편의 논문발표와 76건의 특허기술을 획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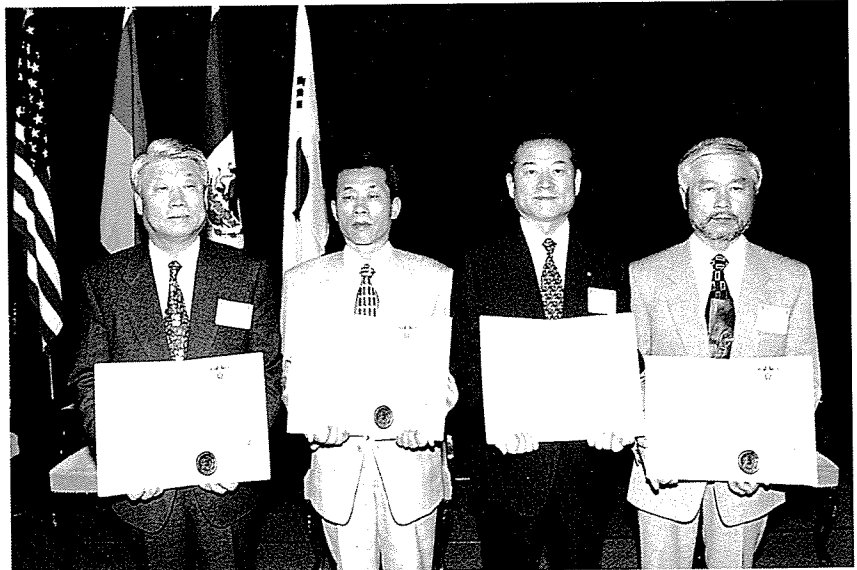
논문 5편 ... 특허기술 76건 획득

앞으로는 포철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겠다는 김사장은 올해를 글로벌 경영기반 구축, 지속적인 경영혁신, 범포스코 차원의 동반성장 실현을 3대 운영목표로 정하고 포철을 건강하고 튼튼한 경영구조를 가진 회사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다짐한다.

“우선 2천8백만톤 조강생산체제를 위한 설비 신예화 및 합리화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고유 핵심기술개발과 자력 엔지니어링 구축에 주력하는 한편 성장잠재력이 큰 중국과 동남아 등지로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견고한 글로벌 경영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산, 판매, E&C, 구매 등 전략부문에 대한 BPR(Business Process Restructuring) 확산 등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부문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소수정예의 인력으로 최대의 부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김사장은 이와 함께 인력, 제도, 관리시스템 등 출자사에 대한 경영소프트 측면의 지원을 강화하고, 출자사와의 전략목표 공유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 지난 4월20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거행된 제29회 과학의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과학기술상(과학상, 기술상, 기능상, 진흥상)수상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한 김종진사장. (右에서 두번째)

위해 포철 임직원이 출자사의 경영위원회에 참여토록 하는 연결경영을 강화함으로써 범포스코 차원의 동반성장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힌다.

김사장은 또 현재 세계 경제가 국경 없는 무한경쟁 속에서 국가간 신기술개발이나 첨단기술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동종업체간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을 개발하거나 정보를 주고 받는 등 전략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며 국내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긍정·합리적 思考가 좌우명

“업종을 불문하고 통합된 하나의 세계시장에서 생존하고 계속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 동종업체간에 또 국내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간에 서로 협력하여 각 분야의 공통 애로기술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여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해서 모든 업계가 세계 최

고를 지향할 때 우리나라도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인 서미강(徐美江·53)씨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둔 김사장은 매사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합리적인 사고로 임하는 것이 좌우명이라며 항상 정직, 성실, 화합으로 생활하려 노력한다고 한다. 또 틈이 나는대로 몸을 쉬지않고 움직이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며 건강관리를 한다는 김사장은 학창시절에는 운동을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한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육상단거리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지금 이만큼의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학창시절에 운동을 많이 한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소설책이나 과학서적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제나름대로 많이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무엇보다 책을 많이 읽고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ST**